

	보 도 자 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미래창조금융•따뜻한 금융•튼튼한 금융
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		
책 임 자	손주형 과장(2156-9730)	담 당 자	정선인 서기관(2156-9731) 태현수 사무관(2156-9733)
배 포 일	2015.6.19.(금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2매

제 목 : 임종룡 금융위원장, 제8차 「金요회」 개최
- 메르스(MERS; 중동호흡기증후군) 관련 경제·금융시장 점검

- 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완수하고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**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노력 중**
- 이를 위해 **매주 금요일(조찬)마다**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**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「金요회」**를 운영
 - 특히, 이번 「金요회」에서는 국내 시장전문가뿐만 아니라 **해외 IB 애널리스트, 외은지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**
- ☐ 금일 여덟 번째 「金요회」에서는 “**메르스 확산이 경제·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**”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함
- 시장전문가들은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**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둔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은 불가피하며,**
 - 음식숙박·교통 등 서비스 부문 중심의 소비 둔화 우려, 외국인 관광객 급감 및 여행 서비스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을 제기함
 - 이와 함께, 메르스는 구조적 요인이 아닌 **일시적 요인**으로 한국경제의 트렌드에 미치는 **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**이라는 의견도 제시됨

- 다만, 이를 위해 금번 메르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의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,
-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운 만큼, 내수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 추진이 필요하고, 중요한 가격변수로서 환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

□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메르스 확산 방지 및 경제적 영향 최소화 방안을 설명하고,

○ 관계부처와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

- 특히, 금융위 차원에서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실적을 일일점검하고 있으며,

-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

□ 한편, 현재 추진중인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위의 의지를 밝히고 해외 투자자 및 외국계 금융회사에 이를 충분히 전달해 주기를 당부하였음

○ 이와 함께 조만간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서민경제 위축에 대비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

< 제8차 「금요회」 개요 >

■ 일시/장소 : 2015.6.19(금) 07:30~09: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

■ 주요 참석자

- (금융위) 금융위원장, 사무처장, 금융정책국장, 자본시장국장 등
- (전문가)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, 권영선 노무라 전무,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, 김태호 UBS 서울지점장, 송기석 BOA메릴린치 전무,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